

광주에도 28년만에 운전면허시험장 생긴다

시, 북구 삼각동에 2025년 신설 추진... 토지 소유주 반발 등 변수

전국 17개 시도 중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에 이르러 오는 2025년 시험장이 신설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4만210㎡) 부지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험을 갖춘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변경도 마무리 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교통공단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다. 사업비는 국비

260여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주민·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어 내년 초개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광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

광주는 1997년 두암동에 있던 면허시험장이 주로 이전한 이후 25년동안 운전면허시험장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되면서, 광주시민은 나주시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관련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2019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신규 면허자 4만733명 중 절반이 넘는 2만3132명이 광주 시민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들 사이엔 면허시험장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험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다행히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으로 시설설계비 20억원 등 2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고, 곧바로 가장 시급한 부지확

보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공단이 추천한 후보지의 상당 면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공단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삼각동 418번지 일원을 최종 건립부지로 확정된 상태다.

물론 면허시험장 착공까지는 주민과 광주시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히 건립부지 내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광주시의 계획대로 2025년 공식 개장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대 캐릭터 '라이트' 공개



광주대학교가 5일 새 캐릭터 '라이트' (사진)를 공개했다.

라이트는 광주대 상징동물인 사자를 MZ세대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형상화해 26종의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했다.

광주(光州)와 광주대학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을 활용했으며, 학교 호심관의 빛나는 건물의 모습도 담았다. 또 라이트는 평범한 빛의 갈기와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무등산 로고에 다채로운 색의 빛을 뿜내고 있다. 광주대는 라이트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물과 상품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한열 열사 35주기

제35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제가 5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가족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

“쓰레기 수거하다 손 베었다” “종량제 봉투 여전히 무겁다”

전남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토론회 10명 중 7명 “수거차량 고장 경험”

전남지역 환경미화원 10명 중 2명은 지난해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고, 7명은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고장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문보현 전남노동권익센터 정책팀장은 5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남 환경미화 노동환경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남 환경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환경미화원 10명 중 2명 이상(26.3%)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 경험 횟수는 평균 2회였고 병원 치료 기간은 평균 19.1일이었다.

가장 많이 경험한 사고 유형(복수 응답)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림'(72.5%)으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71.1%) 등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10명 중 7명 이상(76.4%)이 "있었다"고 답했다. 발생한 문제(복수 응답)는 각종 유압장치(63.8%), 압축(압착)기(40.6%), 타이어(20.1%), 리프트(19.2%), 브레이크(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규격이 적당한지에 관해 물은 결과 '꼭꼭 눌러 담은 봉투는 몸에 무리가 간다'(48.5%), '최대 크기 봉투 규격과 무게 기준 자체가 여전히 높아 힘들다'(43.6%)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근무형태는 지체제 직역이 75.7%, 위탁업체가 24.3%였다. 월 평균 임금(수당 등을 포함한 실수령액)은 325만6000원으로 조사됐으나, 시군마다 편차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 1819명의 환경미화원 가운데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호남대 정대원 교수팀,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개발

호남대 전기공학과 정대원(사진) 교수 연구팀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센서'와 '화재진압 질석 소화약제 투입 분사장치'를 개발했다.

5일 호남대에 따르면 정 교수팀이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안전 센서'는 배터리에서 발열과 함께 방출되는 다수 종류의 가스를 조기에 검출하고 화재여부를 판단하는 AI(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했다.

이는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화재진압 질석 소화약제 투입 분사장치'는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약제를 발화원인 배터리에 분사해 즉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정대원 교수

작동한다. 소화약제 투입 후 20분 이내에 80도 이하로 배터리를 냉각시켜 재발화를 차단한다.

이들 장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인시험 기관인 KOMERI(한국해양선박기자재시험연구원) 성능 시험을 거쳐 화재진압 성능을 검증받았다.

연구팀은 전기차 업계에 기술이전이 이뤄지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대원 교수는 "국내 등록 전기차가 지난해 말 기준 23만대를 웃돌고 있으며 화재도 해마다 급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고 있다"며 "전기차량, 전기선박 등 대중교통과 중대형 ESS 설비 화재, 재난방지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장치는 정대원 교수 연구팀과 호남대 가족회사인 월기술이 공동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한 산학협력 연구결과물이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물을 오는 8월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선도 통합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SWEET 2022'에서 최초 공개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음주운전 때문에... 광주·전남 교원 52명 정부 포상 탈락

광주·전남 교원 52명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정부 포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퇴직 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에 136명, 8월에 240명 등 모두 376명이었다.

광주에서는 2,8월 통틀어 14명, 전남은 38명이 포상에서 배제됐다. 이 가운데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광주 5명, 전남 10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19명에 달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교장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